

일본의 디지털방송 수신실태와 시청자지원 현황분석

2008. 12. 8

요약

- I. 일본의 디지털방송 보급 현황
- II. 일본의 디지털방송 수신 실태
- III. 일본의 디지털난시청 대응 방안
- IV. 일본의 디지털전환 시청자지원 정책
- V. 결론 : 주요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요 약

○ 일본의 디지털 방송 보급 현황

- 일본의 전체 세대 수는 약 5,000만 세대이며 총TV보급대수는 1억대로 추정되며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 세대는 1,800만 세대임.
- 일본 디지털 수신기의 보급률은 2008년 2월 기준으로 43.7%, 일본의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보급대수는 4,103만 대(2008년 9월 말 기준)로 추산됨.
- 한편,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시청실태를 살펴보면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실제로 시청하고 있는 세대는 약 30% 전후로 디지털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시청하지 않고 있는 세대가 전체의 1/4에 달함.

○ 일본의 디지털 방송 수신 실태

- 일본의 지상파 방송 시청유형은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 세대, 공동주택 공청시설 세대, 수신 장애 대책 공청시설 세대, 벽지 공청시설 세대, 케이블TV 시청 세대로 구분됨.
- 이 중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 세대는 약 2,000만 세대, 공동주택 공청시설 수신 세대는 약 770만 세대(52만 시설), 수신 장애 대책 공청시설 세대는 약 650만 세대(5만 시설), 벽지 공청시설 세대는 약 150만 세대(2만 시설), 케이블TV를 통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수신 세대는 약 2,150만 세대로 추산됨.

- 일본총무성은 공동주택의 공청시설 세대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 수신 대응 비율을 2010년 3월까지 85%로 끌어 올리고 2011년 7월에는 100% 완료한다는 방침임.
- 한편, 수신 장애 대책 공청시설 세대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 수신 대응 비율은 2010년 3월까지 50%로 끌어 올리고 2011년 7월에는 100% 완료한다는 방침임.
- 2008년 9월말 현재 19%에 불과한 벽지 공청시설 세대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 수신 대응 비율은 2010년 3월까지 64%로 올리고 2011년 3월까지 100% 완료한다는 방침임.
- 케이블TV에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위한 별도의 재송신서비스의 도입의 추진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종료 후에도 잔존하는 아날로그 수신기에 대한 대책으로 잠정적 조치로서 케이블TV의 헤드엔드에 대해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변환해 재송신 하는 서비스(디지털·아날로그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음.

○ 일본의 디지털 난시청 대응방안

- 일본은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 시에 지상파 방송의 전파로 커버되고 있던 시청 세대는 지상파 방송사의 중계국 정비에 의해서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 권역의 100% 커버를 원칙으로 하나 중계국 정비를 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해서는, 케이블TV, 공청시설, 갭 필러, IPTV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추진할 계획임.
- 디지털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지역의 케

이불사업자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의무적으로 재전송하도록 재전송의무(재전송동의)를 부여하고, IPTV를 통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재전송을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조건 불리 지역(산간벽지)에서 확대하며, 공청시설개·보수, 케이블TV시청, IPTV재전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조치로 난시청이 해소될 때까지 별도의 위성을 이용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위성세프티넷을 운영할 계획임.

○ 일본의 디지털 전환 시청자 지원 정책

- 일본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지원 대상을 **경제적 약자와 기술적 약자, 공공기관**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 중임.
- 경제적 약자에는 일본의 생활보호세대 총 107만 세대와 NHK 수신료 면제세대 196만 세대, 기술적 약자에는 세대 구성원 전체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된 840만 세대와 신체장애인 약 490만 세대(시각장애인 39만, 청각장애인 45만 포함), 지적장애인 73만 세대, 정신장애인 40만 세대, 공공기관에는 정부산하의 공공시설은 19,413개소가 포함됨.
- 시청자 지원방법은 아날로그TV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케이블 TV용 간이STB, 직접수신용 안테나, 디지털튜너 등이 지원되며, 쿠폰 배부 시는 1만 엔 이하의 쿠폰 배부가 예상됨

I. 일본의 디지털 방송 보급 현황

- 일본은 2003년 12월 1일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지역부터 지상과 디지털 TV 방송이 시작하여 점차 권역을 확대한 결과, 지상과 디지털 방송을 수신 가능한 세대의 커버리지 비율은 2008년 12월 기준으로 96%로 추정됨.
- 디지털 지상과 방송의 커버리지는 2010년 말까지 98%(NHK기준)로 확대한 뒤, 2011년 아날로그 지상과 방송의 종료 시점에는 디지털 지상과 방송의 서비스 범위를 기존의 아날로그 지상과 방송의 서비스 범위와 동일하게 확대시킨다는 방침임.
- 일본의 전체 세대 수는 약 5,000만 세대이며 총TV보급대수는 1억대로 추정되며 아날로그 지상과 방송의 직접 수신 세대는 1,800만 세대임.
- 2008년 3월 말 현재 케이블TV 가입 세대 2,190만 세대로 세대 보급률은 42.4%이며 이 중 디지털 지상과 방송 시청이 가능한 세대는 2,120만 세대로 추산됨.
- 한편, 일본 디지털 수신기의 보급률은 2005년 3월 8.5%, 2006년 3월 15.3%, 2007년 3월 27.8%, 2008년 2월 43.7%로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임.
- 2008년 9월 말 현재, 일본의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보급대수는 4,103만 대로 추산됨. 이는 당초 목표 1억대의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수신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됨.
- 디지털 방송 수신에 필요한 디지털튜너의 가격은 튜너의 성능에 따라 가격차가 심하나 데이터방송 및 양방향서비스가 가능한 고기능 튜너는 약 3만 엔, HD방송수신만 가능한 튜너는 1.5만 엔 전후에 구입이 가능함. 반면, 디지털 방송 수신을 위한 실내 안테나(2,400엔)와 옥외안테나(3,300엔~4,200엔) 등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음

-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시청실태를 살펴보면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실제로 시청하고 있는 세대는 약 30% 전후로 디지털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시청하지 않고 있는 세대가 전체의 1/4에 달함.
- 일본 지상파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2009년부터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 2011년까지 총 2,200억 엔에 달할 전망이다.

II. 일본의 디지털 방송 수신 실태

1. 일본의 지상파 방송 시청 유형

- 일본총무성은 인위적·자연적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세대를 약 1,000만 세대로 파악하고 있음.
- 일본의 지상파 방송 시청유형은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 세대, 공동주택 공청시설 세대, 수신 장애 대책 공청시설 세대, 벽지 공청시설 세대, 케이블TV 시청 세대로 구분됨.
-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 세대는 약 2,000만 세대로 추정되며, 이들 세대가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UHF 수신 안테나를 추가하거나 교환·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는 실내배선 기기의 교체·조정도 요구됨.
- 일본의 공동주택 공청시설 수신 세대는 약 770만 세대(52만 시설)로 추정됨. 직접 수신 세대와 동일하게 거주자 개별로 안테나, 부스터·분배기 등 공동주택 배선 기기의 개·보수가 필요함. 특히 공동주택 공청시설 수신 세대의 경우는 입

주민 또는 입주자대표의 개·보수 비용부담에 대한 동의가 선결되어야 함.

- 2007년 10월 현재 일본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수신 장애 대책 공청시설 세대는 고층빌딩의 음영, 송전탑, 철도, 도로설비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신 장애 대책으로서 만들어진 공청시설을 이용하여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세대로 약 650만 세대(5만 시설)가 해당.
- 벽지 공청시설 세대는 약 150만 세대(2만 시설)로 기존의 아날로그 안테나의 수신지점을 디지털 방송 수신에 적절한 위치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안테나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이 발생함.
- 케이블TV를 통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수신 세대는 약 2,150만 세대에 달함. 기존에 케이블TV를 시청해 왔던 이들 세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케이블TV 측에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개·보수의 책임이 있지만,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환자금의 용자 및 세제 차원에서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표 1> 일본의 지상파 방송 수신 유형별 디지털 전환 및 비용부담 주체

	지상파 수신 형태 유형				
	직접수신 세대	공동주택 공청시설 세대	수신장애 대책 공청시설세대	벽지 공청시설 세대	케이블TV 시청 세대
세대수	약 2,000만 세대	약 770만 세대	약 650만 세대	약 150만 세대	약 2,150만 세대
디지털 전환	-실내 개·보수 (안테나,부스터, 분배기, 케이블 교환) 필요	-분양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 동의 필요	-개·보수방법의 결정 (공청시설 개·보수 또는 직접수신 전환) 필요 -수신 장애의 원인 제공자와 주민 사이의 비용부담 조정 필요	-개·보수방법의 결정 (유선공청의 디지털화 개·보수,무선공청신설) 필요 -기존의 아날로그 안테나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안테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재송신 서비스 가입이 필요

			요	위치 이전 필요	
비용 부담	-개인부담	-공청시설의 개·보수 비용은 소유자 부담	-수신장애가 해소된 경우는 개별 또는 소유자가 부담 -수신장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제공자와 주민이 협의하여 비용 부담 비율을 결정	-NHK의 공청시설은 NHK와 시청자가 비용을 부담 -자체 공청시설은 시설의 설비관리자(지자체, 공청조합)이 부담 -시청자 부담이 클 경우는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입료, 이용요금은 시청자 부담 -일정의 요건을 갖춘 케이블TV에 한해서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

2. 수신 유형별 디지털 전환 대응 실태

1) 공동주택 공청시설 수신 세대

- 공동주택 공청시설 수신 세대는, 일본 전역에 약 200만 시설이 존재하며 특히 디지털 지상파 방송 수신 대응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4층 건물 이상의 시설은 약 52만 시설(약 770만 세대)이 존재함.
- 공동주택 공청시설 수신 세대의 디지털화와 관련해서는 일본 케이블TV기술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07년 1월 말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 수신 대응이 완료된 상태로 파악됨.
-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수신 대응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공청시설이 전체의 54.2%인 반면, 디지털 지상파 방송 수신 대응을 위한 공사를 계획 중인 곳은 5.0%, 미정인 곳도 40.8%였고,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수신을 위해서 대규모 개·보수 공사가 필요한 시설은 7.6%였음.

- 특히, 개별 소유가 아니라 공동소유의 형태로 소유된 공동주택의 경우 공청시설의 개·보수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관련업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유자들이 디지털 전환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일본총무성은 공동주택의 공청시설 세대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 수신 대응 비율을 2010년 3월까지 85%로 끌어 올리고 2011년 7월에는 100% 완료한다는 방침임.

<표 2> 공동주택의 공청시설 디지털 개·보수 비용

개·보수 구분	비율	개·보수비용 (세대별)	개·보수 사례	비고
불요	30.8%	-	-	비교적 최근에 신축된 신축건물이 해당
조정	15.3%	1만 엔 이내	증폭기의 조정	비교적 최근에 신축된 신축건물이 해당
교환·부착	46.3%	5만 엔 이내	- 안테나의 개·보수 - 증폭기의 조정	지역에 따라 비용증가 - 비교적 낮은 건물의 경우 UHF안테나 신설, U/V대역증폭기 교환이 필요 - 광역방송사와 지역방송사의 송신점이 다를 경우 추가 비용발생
대규모	7.6%	5만 엔 이상	- 배선의 전면교체 - 단자의 전면교체	건축연수가 오래됐고 VHF대역만을 수신하는 시설이 해당

2) 수신 장애 대책 공청시설 세대

-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수신 장애 대책 공청시설 650만 세대 중,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수신 장애 대책 공청시설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시청해야 할

<표 3> 수신 장애 대책 공청시설 현황

수신장애원인	시설수		세대수	
	시설	비율	세대	비율
항공기 운항	449	0.9%	110,373	1.7%
건물	45,340	90.7%	4,238,717	65.7%
철도의 전기잡음	1,294	2.6%	314,963	4.8%
도로의 고가	239	0.5%	400,602	6.1%
송전탑	2,384	4.8%	1,416,290	21.6%
기타	258	0.5%	65,903	1.0%
합계	49,964	100.0%	6,546,848	100.0%

- 650만에 달하는 수신 장애 대책 공청시설 세대 중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수신 장애가 해소될 경우, 수신 장애 대책은 불필요함
- 문제는 디지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수신 장애가 지속될 경우에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수신 장애 대책이 요구됨.¹⁾
- 이러한 수신 장애 대책 공청시설 세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수신 장애 대책 공청시설을 디지털 전환 후에도 계속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 직접 수신의 방법으로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것인지를 결정한 뒤, 수신 장애의 원인 제공자와 주민 사이에 비용분담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함.
- 하지만 대규모 공익사업자가 운영하는 공동주택(임대주택) 등은 실측조사로 수신 장애 범위를 측정하여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 전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대다수의 공동주택은 실측조사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 수신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전환 후에도 공청시설로 계속 수신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힘든 것이 현실임.

1)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수신 장애 지역은 기존의 1/10으로 줄어들 전망이나 송신타워로부터 멀리 있는 지역은 디지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수신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지역별로 정부차원에서 수신 장애 범위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직접 수신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 수집 및 정보를 제공하는 태세를 갖출 필요가 제기됨.
- 또한, 해당 주민과 수신 장애 원인 제공자 간의 비용분담 협의 및 조정이 곤란한 경우나 원인 제공자의 특징이 어려울 경우(부동산업자가 건물을 개발 후 개별 분양한 경우, 건물 건축 시 개발업자가 당시 주민과 협의하여 비용부담을 완료한 경우 등이 해당)가 예상됨으로 이러한 해당 주민과 수신 장애 원인 제공자의 비용부담 협의 및 조정을 위한 별도의 기관 설립이 요구됨
- 수신 장애 대책 공청시설의 디지털 전환 비용은 협대역시설(~222MHz 이하)의 경우, 시설에 따라 200만 엔에서 500만 엔 이하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디지털 전환 비용은 수신점(안테나)설비의 개·보수 비용에 평균 270만 엔(140만 엔~396만 엔), 간선설비(배선, 분배기, 안정기, 증폭기 등)의 개·보수 비용이 평균 51만 엔(3만 엔~120만 엔), 실내설비(전송확인, 튜너비용 등) 개·보수 비용이 평균 78만 엔(35만 엔~112만 엔)이 소요될 전망이다.²⁾
- 일본총무성은 수신 장애 대책 공청시설 세대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 수신 대응 비율을 2010년 3월까지 50%로 끌어 올리고 2011년 7월에는 100% 완료한다는 방침임.

3) 벽지 공청시설 세대

- 벽지 공청시설 세대의 경우 안테나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해당 공청시설 이용 세대의 대부분이 경제적 소득이 낮은 산간벽지의 거주자들이라는 점에서 비용 전액을 주민이 부담토록 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벽지 공청시설에 대해 특별히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2) 수신 장애 대책 공청시설의 디지털 전환 비용은 공청시설의 규모가 적을수록 부담비용이 증가한다.

- 벽지 공청시설의 지원 대상은 산간부 또는 디지털 방송의 시청이 곤란한 시·정·촌(한국의 시·읍·면에 해당) 소재의 유선 및 무선의 공청시설이며 수신점(안테나) 설비의 이전과 신설·개·보수 비용이 세대 당 3.5만 엔 이상 소요되는 공청시설의 디지털 전환 비용을 50%까지 정부가 보조함.³⁾
- 일본총무성은 2008년 9월말 현재 19%에 불과한 벽지 공청시설 세대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 수신 대응 비율을 2010년 3월까지 64%로 올리고 2011년 3월까지 100% 완료한다는 방침임.

4) 케이블TV 시청 세대

- 공청시설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케이블TV 사업자도, 공청시설의 실태 파악이나, 조기의 디지털화 대응을 위한 공청시설 관리자등에 대한 홍보활동 등에 최대한 협력토록 유도함.
- 케이블TV에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위한 별도의 재송신서비스의 도입의 추진하며 지상 디지털 방송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케이블TV사업자에게 시청자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보다 이용하기 쉬운 서비스 및 제공 조건 등으로 지상 디지털 재송신만을 위한 재송신서비스가 조기에 도입·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종료 후에도 잔존하는 아날로그 수신기에 대한 대책으로 잠정적 조치로서 케이블TV의 헤드엔드에 대해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변환해 재송신 하는 서비스(디지털·아날로그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잠정적 도입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3) 2008년도 일본총무성의 벽지 공청시설 지원예산은 51.9억 엔이 편성되었다.

Ⅲ. 일본의 디지털 난시청 대응방안

1. 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

- 일본은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 시에 지상파 방송의 전파로 커버되고 있던 시청 세대는 지상파 방송사의 중계국 정비에 의해서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 권역의 100% 커버를 원칙으로 하나 중계국 정비를 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해서는, 케이블TV, 공청시설, 갭 필터, IPTV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추진할 계획임.
- 먼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는 케이블TV를 통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시청을 유도하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지역의 케이블사업자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의무적으로 재전송하도록 재전송의무(재전송동의)를 부여하고 있음.
- 한편, IPTV를 통한 디지털 난시청 지역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 계획은 한국의 IPTV에 해당하는 전기 통신 역무 이용 방송 사업자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이른바 조건 불리 지역에 있어서는 아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를 위한 전기 통신 역무 이용 방송 사업자들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임
- 따라서 일본총무성은 디지털 지상파 방송 수신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향후, IPTV를 통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재전송을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조건 불리 지역(산간벽지)에의 제공을 전제로 해, 전기 통신 역무이용 방송 사업자가 제공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 또한, 공청시설개·보수, 케이블TV시청, IPTV재전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했음에

도 불구하고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조치로 난시청이 해소될 때까지 별도의 위성을 이용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위성세프티넷을 운영할 계획임.

- 위성세프티넷은 2009년 중으로 운영이 시작되며 위성세프티넷의 시청에 따른 시청자들의 비용부담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할 예정임.
- 끝으로 일본은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시청 수단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PC에서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시청의 확대를 추진하며,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용 튜너가 탑재 PC보급과, PC용 USB 튜너 보급 등 기존 PC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주변기기의 보급에 노력하고 있음.

IV. 일본의 디지털 전환 시청자 지원 정책

1. 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

- 일본은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수신기기 구매는 기본적으로 시청자의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명백한 경제적 이유로 인해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했던 세대가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세대들이 아날로그 방송처럼 계속해서 디지털 방송도 시청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검토 중
- 현재 일본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지원 대상을 **경제적 약자와 기술적 약자, 공공기관**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지원 대상의 첫 번째 우선 순위는 경제적 약자이자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보호세대”, “NHK수신료 감면세대”(장애인) 등

이 검토되고 있음.

- 일본후생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생활보호세대의 규모는 총 107만 세대이며, 고령자 세대⁴⁾ 약 47만 세대, 중병자 세대 약 29만 세대, 장애인 세대 약 13만 세대, 모자가정 세대 약 9만 세대, 기타 세대 약 11만 세대로 구성됨.
- 하지만 디지털 전환 지원을 경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에 한정 할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를 배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일본 방송법은 NHK를 수신하는 수신기를 설치한 자는 NHK와 수신료 계약을 체결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명기하고 있으나, 일본총무성이 허가한 “일본방송협회 방송수신료 면제기준”에 따라 생활보호세대 등의 경제적 약자에게 대해서 NHK수신료를 전액면제 또는 반액면제하고 있음
- 2007년 말 기준으로 NHK수신료 전액면제 세대는 196만 세대로 추정되며, NHK수신료 면제 세대에는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재해 등의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NHK수신료를 면제하고 있음.
- 기술적 약자란 고령화라는 일본의 특색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이나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이 이에 해당될 전망이다.
- 세대 구성원 전체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된 세대는 840만 세대로 추정되며 이들 고령자에 대한 지원은 일정한 소득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기술적 약자라는 관점에서 튜너지급이 아니라 기술적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
- 또한, 장애인 세대의 규모는 신체장애인 약 490만 세대(시각장애인 39만, 청각장애인 45만 포함), 지적장애인 73만, 정신장애인 40만 등이며 이들에 대해서도 기술적 약자라는 관점에서 튜너설치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별도의 지원방안이

4) 고령자 세대: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이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포함된 세대. 모자가정 세대: 사별, 이혼, 생사불명 및 미혼 등으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65세 미만의 여성과 18세 미만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세대. 기타 세대: 청소년 가장 세대 등이 포함.

강구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

- 디지털 전환에 따라 디지털 전환관련 공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교육시설 및 병원, 교도소 등 공공기관 등이 이에 해당됨.
- 일본의 초·중·고교에 설치된 TV수상기는 약 60만대로 추산되며 이 중 상당수가 디지털 전환 대상이며, 정부산하의 공공기관은 19,413시설로 파악되고 있음.

2. 시청자 지원방법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방법은 2008년 여름까지 계획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임.
- 현재 시청자지원 대상과 관련해 대략 몇 가지의 안이 제시된 상태이나 대상과 범위를 누가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하는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현재로서는 일본총무성은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 종료 후 디지털방송이 시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에 한정해 시청자지원을 실시하다는 방침임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청자지원은 현물, 현금, 쿠폰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쿠폰 지급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음.
- 시청자 지원방법은 아날로그TV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케이블TV용 간이STB, 직접수신용 안테나, 디지털튜너 등이 지원되며, 쿠폰 배부 시는 1만 엔 이하의 쿠폰 배부가 예상되며,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쿠폰을 우송한 후 쿠폰을 이용해 디지털 튜너 및 안테나를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 하지만 현물과 쿠폰 중에 어떠한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론

이 난 상태는 아님

- 시청자지원 대상의 저소득층 가운데 자발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자기부담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임.
- 시청자지원을 위한 예산규모는 지급할 튜너의 가격 및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추정이 가능하지만 현재 일본에서 시판되고 있는 디지털 튜너의 가격대가 기본형이 1.5만 엔, 고가형은 3만 엔의 가격대로 비교적 고가라는 점에서 5천 엔 전후의 간이튜너의 개발을 통한 튜너가격의 인하를 유도한다면 지원 금액을 최대 1만 엔 이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시청자지원을 위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며 예산조달 방법은 국채발행이 유력시 됨
- 또한, 디지털 전환의 시청자지원 예산에는 튜너지원 및 안테나, 기술적 지원 등과 더불어 아날로그TV 회수에 따른 비용까지 예산에 산정할 방침임.

V. 결론 : 주요 시사점과 향후 과제

- 지상파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및 고령자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아날로그 종료 기간 내에 법령 등의 변화에 따른 생활보호세대의 추가 인정 및 수신료 면제 세대의 발생은 없는지를 파악해야 하며 지원실시를 구실로 부정청구방지책을 강구할 필요성도 있음.
-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지원 대상 세대를 파악하거나 실제 지원 시 지원을 받는 세대의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쿠폰 전달 시나 설치공사 시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이 필요).

- 디지털 전환 지원 대상자의 저소득층 가운데 디지털방송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시청자에 대해서는 염가의 디지털튜너만을 제공하는 데 따른 디지털 디바이드 발생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요구됨.
- 디지털전환 지원을 이용한 악덕 업자들의 불법적인 갈취 및 고가의 서비스비용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강구되어야 함.
-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청시설의 디지털 수신 대응이 중요함. 순조로운 공청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공청시설의 디지털 대응 공사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해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관의 설치가 요구됨.
- 한편, 저소득층 지원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디지털 난시청 지역의 발생 문제임.
- 디지털 난시청 지역이란 디지털 전환으로 새롭게 생긴 디지털 난시청지역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은 정상적으로 수신되었지만 디지털이 되면서 지상파 수신 이 불가능해 진 지역을 말함.
- 이러한 디지털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보조 중계국이나 보조수단 강구 시까지 위성을 통한 세프티넷 및 케이블TV재전송, IPTV재전송를 통한 디지털 지상파 방송 수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함.

<참고 문헌>

- 사단법인 디지털방송추진협회(2008.11.6), 10월말 현재 디지털방송의 보급현황.
- 일본 지상파디지털추진전국회의(2008.12.1), “디지털 방송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 (제9차).
- 일본총무성(2008.7.24),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 종합대책.
- 일본총무성(2008.8), 지상파디지털방송의 완전이행을 위한 종합대책-2009년도 예산 소요액의 내용.
- 일본총무성정보통신정책국(2008.2.15), 지상파디지털방송 추진에 관한 대응상황에 관해.
- 지상파디지털방송 추진에 관한 검토위원회사무국(2008.2.29), 지상파디지털방송에 관한 자료. 일본총무성.
- 지상파디지털방송 추진에 관한 검토위원회사무국(2008.3.28),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I (공청시설의 대응에 관해), 일본총무성.
- 지상파디지털방송 추진에 관한 검토위원회사무국(2008.1.28), 자료1~6-5. 일본총무성.
- 전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2008.4),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위한 방송대응의 수준에 관해~아날로그방송 종료계획안.

<부록>

지상파 디지털 방송 추진 종합 대책

2008년 7월 24일

일본총무성

<목 차>

I. 국민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이해를 위한 대책

1. 필요한 정보의 철저 제공

- (1) 방송을 활용한 홍보
- (2) 지방공공단체 등과의 제휴
- (3) 아날로그 수신기의 오구입 방지
- (4) 국민운동의 전개

2. 악질 상범 대책

3. 상담 체제의 충실·강화

II. 수신자측의 대책

1. 수신기의 보급

- (1) 간단하고 이용이 손쉬운 튜너의 개발·유통 촉진
- (2) 사용하기 쉬운 기기의 보급 촉진
- (3)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 (4) 고령자·장애인 등의 협력 및 지원

2. 공청시설의 정비 촉진

- (1) 벽지 공청시설의 디지털 개·보수 촉진
- (2) 수신 장애 대책 공청시설의 디지털 개·보수 촉진
- (3) 집합주택 공청시설의 개·보수 촉진

3. 공공시설의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 대응

III. 송신자측의 대책

1. 디지털 중계국의 정비

- (1) 중계국 정비의 촉진
- (2) 디지털 난시청 대책

2. 디지털 혼신 대책

3. 케이블TV의 활용

- (1) 케이블TV
- (2) IPTV 재송신

4. 위성방송을 활용한 잠정적 지역 난시청 해소 대책

IV.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한 대책

1.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한 대응 순서

- (1) 아날로그 방송 종료 계획
- (2)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리허설

2.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한 체제 정비

- (1) 관계자 제휴를 통한 추진체제 확립
- (2) 아날로그 수상기의 폐기·리사이클
- (3)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제의 검토

3.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의 채널 재배치

I. 국민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이해를 위한 대책

1. 필요한 정보의 철저 제공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홍보 및 정보가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세대에 반복해 도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한다. 특히, 노인 등, 정보가 닿기 어려운 시청자들에게도 확실히 정보가 닿도록, 충분한 배려를 한다.

(1) 방송을 활용한 홍보방송

아날로그 TV의 시청자가, 방송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방송이 종료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방송 사업자에게 제의한다. 「아날로그 로고 마크」, 「아날로그 방송 종료 고지 자막」, 「아날로그 방송 종료의 소식 화면」 등의 대응을 강화하도록, 방송 사업자에게 제의한다. 방송 이외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도 모든 기회를 활용해 홍보활동에 임한다.

(2) 지방공공단체등과의 제휴

고령자만의 세대 등, 정보가 닿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세대를 포함해 정부는, 지방공공단체, 자치회, 민생 위원 등 지역에 밀착한 분들의 협력을 얻어, 모든 시청자들의 수신 형태에 대응한 정확한 홍보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3) 아날로그 수신기의 오구입 방지

아날로그 TV를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기기로 오해해 구입하지 않게끔, 아날로그 TV의 메이커나 판매점에 구매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대형 스티커를 붙이도록 계속해 노력한다. 현지 전기제품 판매점의 협력에 의해, 설명 자료의 배포 등에도 임한다.

(4) 국민운동의 전개

지상 방송의 디지털화를 국민에게 이해하시기 위한 활동을 국민운동으로서 복돋워 갈 수가 있도록, 총무 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민운동 추진 본부」를 설치한다.

2. 악질 상법 대책

시급하게, 관계 부처 간의 연락 체제를 강화해, 악질 상법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 언론 기관에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다. PIO—NET(전국 소비 생활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활용, 악질 상법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공유함으로써 관계 부처가 제휴해 대책을 강구한다. 홈 페이지, 설명회 등을 통한 주의 환기를 실시하고, 실제로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는 관계 기관과 제휴, 재발 방지 등에 노력한다.

3. 상담 체제의 충실·강화

모든 국민이 지상과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에 밀착한 조사·상담, 대응·지원 등을 정중하게 실시하기 위한 「텔레비전 수신자 지원 센터(가칭)」를 올 해 가을에, 전국에서 10 곳 정도 설치한다. 또한 2009년 초까지 지역마다 적어도 1 곳에 설치되도록 한다. 본 지원 센터를 거점으로, 일본 전역에서 자세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독거노인 등을 위한 호별 방문을 실시한다. 지상과 디지털 방송에 관한 상담 내용을 축적·분석을 실시하여 유효 활용을 꾀한다.

II. 수신자측의 대책

1. 수신기의 보급

(1) 간단하고 쉬운 튜너의 개발·유통의 촉진

아날로그 수신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널리 보급되어 있는 아날로그 수신기를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을 갖는 간단하고 손쉬운 튜너가 염가로 조기(예 : 5천 엔 이하의 간단하고 쉬운 튜너가 내년 여름까지)에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다.

(2) 사용하기 쉬운 기기의 보급 촉진

디지털 방송의 시청자의 저변을 넓혀 가기 위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기기에 부착되는 리모컨도 고령자도 사용하기 쉬운 간단하고 쉬운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을 추진하고, 시청자에게 홍보 등이 되도록, 계속해서 관련 메이커 등에 요구한다.

(3)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걸쳐, 생활보호수급 세대에 대해, 수신기기 구입등과 관련되는 지원을 실시한다.

(4) 고령자·장애인 등의 협력 및 지원

고령자나 장애인 등,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 자세한 디지털방송 수신 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판매점이나 공사업자의 소개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세대가 확실히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주실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요양 간호 세대나 고령자만의 세대 등에 대해서는, 호별 방문을 통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에의 대응을 지원함과 함께 대응 상황을 파악하여, 아날로그 방송 종료 전에 확실히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공청시설의 정비 촉진

(1) 벽지 공청시설의 디지털 개·보수 촉진

약 2만 시설에 달하는 모든 벽지 공청시설의 완전 개·보수를 위해 NHK가 관리하는 시설의 계획적 개·보수에 맞추어 독자공청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 시·읍·면과의 제휴를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조기 개·보수를 재촉한다. 한편, 디지털 난시청 대책을 위한 공청시설의 신설 등에 대한 지원도 충실히 한다.

(2) 수신 장애 대책 공청시설의 개·보수 촉진

①시설 개·보수의 촉구

관련 업계의 협력을 얻어 금년도 중에 전국의 수신 장애 대책 공청시설의 최신 정보를 정리한 관리리스트의 정비를 실시한다. 대규모 공청시설 소유자에 대한 수신 장애 범위의 조사를 조기 실시, 직접 수신이 가능해지는 세대의 통보, 수신 장애가 계속되는 세대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 등의 적절한 대응을 실시하도록 촉구한다.

②시설 관리자 등에 의한 시설 개·보수의 검토 촉진

디지털화 미대응의 공청시설의 관리자 및 시청 세대에 대해 공사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방문해 설명을 실시하여, 디지털화 대응의 촉진을 꾀한다. 관계 업계와 협력해, 공청시설의 표준적인 개·보수 방법이나 소요경비 등의 참고기준 등을 마련해 제공한다. 공공시설 등에 발생하고 있는 수신 장애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책임 하에 2010년 12월말까지 모든 공공 시설 등에 대한 디지털화를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임한다.

③시설 개수에의 지원의 검토

수신 장애의 원인이 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나 당사자 사이의 대화 및 조정이 곤란한 경우, 주민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지 않게끔 지원 조치를 강구한다. 시설 개·보수의 원활화를 꾀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 형성에 이를 때까지의 협의방식 등을 정리하고, 당사자 사이의 협이가 난항을 겪었을 경우의 상담 대응이나 지원의 방법 등을 금년도말까지 검토한다.

(3) 집합주택 공청시설의 개·보수 촉진

관련 업계와의 밀접한 제휴 아래, 맨션 관리조합 등에 대해, 디지털화에의 대응의 움직임 을 가속시킨다. 금년도말까지 디지털화 대응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관리리스트의 정비를 꾀한다.

3. 공공시설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 대응

공공시설에 있어서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 대응에 관해서는, 관련기관에 대해, 2010년 12월말까지 모든 공공시설에 있어서의 디지털화가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 임한다.

Ⅲ. 송신자측의 대책

1. 디지털 중계국의 정비

(1) 중계국 정비의 촉진

중계국 로드맵에 나타난 중계국이 착실하게 정비되도록 조건 불리 지역의 중계국 정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2) 디지털 난시청 대책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방송이 되면서 난시청이 예상되는 세대(최대 35만 세대)에 대해, 2009년 여름까지 대상지역별 대책 계획(중계국 신설, 공청신설 등)을 책정한다. 디지털 난시청 세대 수의 최소화를 목표로 2011년 봄까지 정부의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한다.

2. 디지털 혼신 대책

방송 사업자와 함께, 계속적으로 디지털 혼신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금년도

말까지 개국한 중계국과 관련되는 디지털 혼신에 대해서는 실제로 영향이 있는 지역이나 세대의 판별을 2009년 여름까지 완료한다. 이미 혼신에 의한 수신 장애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 문제마다의 장애의 상황, 혼신 해소 방법, 혼신 해소 주체 및 실시 기간 등을 정리한 「대책 계획」을 책정한다. 또한, 혼신 대책에 관한 지원 조치를 확충해, 혼신의 발생 상황에 대응하여 해소 방법의 선택사항을 늘린다.

3. 케이블TV의 활용

(1) 케이블TV

① 케이블TV 디지털화의 계획적이고 적절한 추진

늦어도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인 2010년 12월까지 모든 케이블TV 시설에 대해 디지털 대응을 완료하도록,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② 지상파 디지털 방송만의 재송신 서비스의 도입 추진

지상파 디지털 방송만의 재송신 서비스의 조기 도입을 위해 시청자가 이용하기 쉬운 서비스 메뉴, 제공 조건 등의 검토를 케이블TV 업계에 제의한다. 또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아날로그 전환에 따른 재송신 서비스의 잠정적 도입에 대해, 케이블TV 업계에 조건 정비를 향한 과제 등을 정리하도록 촉구한다.

(2) IPTV재송신

서비스의 기술적 개선을 통해 시청자가 이용하기 쉬운 조건으로, 2010년 말까지 가능한 넓은 서비스 구역에서 제공됨과 동시에, 실시 시기를 나타낸 로드맵이 공표되도록,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에게 촉구한다.

4. 위성방송을 활용한 잠정적 지역 난시청 해소 대책

디지털 난시청 세대(최대 35만 세대)중 물리적·비용적으로 대책이 곤란한 세대에 한해, 잠정적(5년 이내)으로 방송위성을 통한 지상파 방송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9년도 내에 운용을 개시한다. 정부는 이러한 위성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데 있어 송신자와 수신자 쌍방에 지원을 실시한다. 잠정적인 위성방송 이용의 대상이 된 디지털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지상파 방송을 기반으로 한 시청이 가능해지도록 대응책을 마련한다.

IV.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한 대책

1.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한 대응 순서

(1) 아날로그 방송 종료 계획

2011년 7월에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을 원활히 종료할 수 있도록, 시청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지역 간에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종료시기에 차이를 두지는 않고, 방송 종료를 향한 대전을 단계적으로 강화를 기본으로 한 방송 사업자들의 대응이 원활히 실시되도록 환경 정비에 임한다.

(2) 아날로그 방송 종료의 리허설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에 수반하는 과제,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을 한정해 아날로그 방송을 선행해 멈추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의 리허설을 2009년도 중에 실시한다.

2.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한 체제 정비

(1) 관계자 제휴를 통한 추진체제 확립

아날로그 방송을 원활히 종료하기 위해, 일본총무성, 방송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가전판매

점, 공사설비업자, 케이블TV사업자, 가전메이커 등의 관계자가 지역 단위로 제휴해 대책을 강구해 가기 위한 추진체제를 만든다.

(2) 아날로그 수상기의 폐기·리사이클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후에도, 계속 아날로그 TV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주의 환기를 실시하고, 관계 부처와 제휴해 아날로그 TV의 폐기·리사이클 대책에 임한다.

(3)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의 검토

관계 부처 연락 회의에서의 대응 상황 등을 감안하여 아날로그 방송의 원활한 종료를 향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제에 확립에 대해 검토를 실시한다.

3.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의 채널 재배치

중계국마다의 전환 순서나 시청자에게로의 정보 제공 방법, 실시 체제 등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여, 「실시계획(가칭 리팩크)」을 금년도말까지 책정한다. 채널 전환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수신 실태의 현지조사나 지역에서의 정보 제공, 상담 체제의 확립, 중계국의 송신기의 전환 공사 등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